

개혁주의 전통과 교회성장

이복수*

1. 서론

개혁주의 전통과 오순절교회의 전통이 다름은 주지의 사실이다. 두 전통은 각 신종의 차이에서 출발하여 강조점을 달리한다.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면, 오순절교회는 성령의 은사, 방언, 신유 등에 큰 비중을 둔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가시적 은사의 강조로 양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 것은 구태여 부인할 필요가 없다.

한국교회는 또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의 교회성장 이론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던 것도 사실로 평가되어 온다. 맥가브란의 성장이론은 특별히 양적 성장에 강조를 두었는데 그는 오늘날 교회

* 고려신학대학(B.A.), 고려신학대학원(M. Div.), 스코틀랜드 아버딘 대학교(Th. M.), 포체프스트룸 대학교(Th.D.), 고신대학교 선교언어학과 교수

의 최상의 목표를 교회 번성으로 말하며 아울러 교회의 절대적 선교 사명을 '가능한 모든 백성에게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강조했다(김남식 1986, 111). 한국교회의 성장의 관심은 바로 이러한 양적인 강조를 기울여 온 교회성장학과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성장학과의 관심이 개혁주의 전통 위에 놓여진 것으로 분석할 수 없다. 그린웨이(Roger S. Greenway)는 "교회성장학과의 선교이론은 개혁주의 신학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비록 개혁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거기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말이다"(김남식 1986, 91)라고 말한다.

문제는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교회들마저도 성장이란 과제 앞에 압도되어 개혁주의의 전통을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이 주변에서 쉽게 보여지는 수단들에 익숙한 상태가 아닌가 고려된다. 이러한 경향아래 있는 한국의 개혁주의 교회들이 그 본래의 전통을 한번 상기해 보는 일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필요한 요소로 이해된다.

2. 교회성장에 대한 개혁교회의 이해

교회성장의 개념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혹자는 양적성장을 강조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질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 했다. 나아가서 이 두 요소를 융화시켜 양과 질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보다 무리 없는 이해로 인정되기도 했다. 즉 교회성장이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져 교회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그들 중

에서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 가는 이해이다.

개혁교회의 이해가 이러한 이해에만 머무는가? 개혁교회의 이해는 이러한 차원을 넘어선다. 단순히 양과 질의 연합 안에 있는 성장의 개념을 넘어서서 유기적이며 총체적 개념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유기적이며 총체적 개념이란 무엇을 포함하는가? 양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교회가 증가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 가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는 입체적 개념이 곧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양적이며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사명의 폭과 질을 넓혀 나가는 성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유기적 개념으로서의 개혁주의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 교회는 교회가 성장만을 위한 성장을 지향할 수 없는 이해로서의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보다 큰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 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관리하는 도구이며(Ladd 1964, 259~273),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의 시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메세지를 운반하는 도구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병기요, 표지(the Sign of the Kingdom)이다(Vander Walt 1981, 327, 324, 295, 296).

시녀의 수가 증가되거나 도구의 힘이 증대되는 것은 시녀나 도구 그 자체를 위한 것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교회성장은 교회 그 자체의 질량면에서의 확대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

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이해 안에서 개혁교회는 교회의 과제를 기독교 선교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 안에 있는 교회의 봉사, 즉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 안에 있는 전체적인 활동을 포함시킨다. 이 둘은 곧 교회의 사역으로서 복음전도와 선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트(Van der Walt 1981, 297)가 “삶의 다양한 영역 안에 봉사하는 공동체로서 조직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아가서 이 두 종류의 과제들 중 어느 것이 첫째이나 라는 구별은 개혁주의 교회들에게 매력에 없는 일이다 오히려 교회의 전체적인 과제로 이해되고 있다.

개혁주의 교회의 이러한 신학은 그것의 교회성장에 대한 개념과 떼어 수 없는 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교회성장을 질량의 개념 이상으로 입체적이며 유기적인 이해 안에 둔다. 이러한 교회성장 개념은 교회성장이 성장 그 자체를 위한 성장의 개념일 수 없다. 교회성장은 교회의 총체적 사역을 겨냥한 개념이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러한 유기적 개념으로서의 교회 성장을 볼 수 있다. 간하베는 바울의 교회성장 개념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성장은 믿는 자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는’(골 1:9),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데’(골 1:10), ‘몸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는데’(골 2:19), 바울식의 사고방식에서는 하나의 범주가 된다”(김남식 역 1981,

47).

한국교회가 가진 성장의 관심은 이같은 유기적 개념에 거리감이 있었다. 비록 양적인 성장에 질적인 추가에 관심을 결들이긴 했지만 이들 두 요소 모두가 성장을 위한 성장의 차원을 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장에 따라와야 할 교회의 수준 높은 사역을 도외시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위치한 사회적 상황이 입증하고 있는지 모른다. 성장의 기록을 세운 한국교회가 사회 속에 미친 영향력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 앞에서 드러나고 만다.

3. 교회성장을 위한 개혁주의 전통 안에 있는 요소들

역사적으로 개혁주의 교회가 ‘교회성장’이란 슬로건을 내어 걸고 유독히 분산한 분위기를 조성한 모습들은 쉽게 찾을 수 없다. 이것은 교회성장에 무관심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개혁주의 교회는 교회의 바른 가르침으로 통하여 일어나는 변화 속에 맺어지는 성숙에 관심을 기울여 온 모습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한국의 개혁교회는 현재의 성장을 위한 열심에 다음과 같은 개혁주의적인 전통을 보다 뿌리내리게 하는 일에 유념해야 하겠다.

1) 평신도를 깨움

개혁주의 교회의 개념아래 있는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평신도를 깨우는 일이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효시를 이룬 만인제사장에 근거한 전통이다. 이 전통은 곧 개혁주의가 전수하고 있는 전통

이다. 알스톤(Alston 1984, 43)은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교회에 관하여 언급해야 할 첫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개혁주의 교회론에 개인을 위한 역할과 위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혁주의 전통의 믿음 안에서 개인 남녀의 삶은 아주 중요하다. 이점을 만들기 위하여 개혁교회에 의하여 사용되는 가장 으뜸이 되는 상(image)은 만인제사장직인데 일반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제사장직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전통에 의하면 평신도 개인개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특권을 누릴뿐 아니라 책임을 직접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결국 그것의 구성원인 회원에게 주신 사명이며, 구성원들의 이행을 통하여 교회가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성장을 위하여 평신도를 깨우는 일은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가 제각기 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회 속에 스며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역을 이행하는 일이다. 이것은 개혁주의 전통에서 말하는 유기적인 개념으로서의 교회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

알스톤(p47f)에 의하면 만인제사장직을 가장 잘 기술할 수 있는 한 단어는 ‘봉사’라는 용어이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diakonia’으로 이 말에서 ‘집사’란 말이 파생되었다. 그들이 크리스찬의 봉사를 참으로 운반하는 자들이다. 집사의 기본적인 과제는 교회재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병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 늙은 사람들, 그리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을 방문하며

돌보는 것이다. 불쌍한 자들을 도우며, 굶주린 자를 먹이며, 집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집을 찾으며, 그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한다. 간단히 말하면 교회의 집사직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봉사이다.

이러한 알스톤은 중요한 암시를 준다. 만인제사장직을 소유한 모든 성도 개인개인은 만인제사장직을 가장 잘 기술하는 단어로서 ‘봉사의 삶’ 즉 위에서 열거된 집사의 기본 과제로서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나타낸다. 평신도 개인개인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일깨우는 것은 개혁교회의 과제임과 동시에 이러한 삶의 토대 위에서 교회는 유기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

2) 교리적인 가르침의 부활

개혁주의 교회의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는 교회적인 가르침이다. 이 전통은 회중의 믿음을 세우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이 전통이 회중의 믿음을 세워 나가는 이유는 성경 안에 계시된 진리의 체계에 관한 지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유럽 대륙에 많은 개혁주의 교회들은 교리적인 가르침 안에 있는 문답식 교육에 계속적으로 익숙하게 세워져 왔다.

화란의 개혁교회에서는 매주 오후(저녁)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설교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은 52주의 주의 날에 모든 중요한 교리(사도신경), 믿음의 윤리적(십계명) 그리고 헌신적(주님의 기도)인 면들을 다루어 왔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의 한국교회에서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진리의 지식보다는 감정적인 호소가 현실적으로 더 효과 있게 나타나는 것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회 성장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 교리적인 가르침은 실로 중요하다.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체계화한 가르침 없이는 지속적 성장과 성장의 상태를 지속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버틸 수 있는 믿음의 토대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국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단사설들의 침투에 대처할 진리의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단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왔던 모습들을 보아왔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진리의 지식에 대한 체계가 없는 성도들이 참된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성도가 진리의 바른 토대 위에서 사회적인 사명을 지속시킬 수 있겠는가?

교리적인 가르침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전통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기독교회의 시작에서 도입했던 사실이다. 루니아(Runia 1968, 101)는 이러한 전통을 기독교회의 시작에서부터 있었던 요소로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의 연구는 기독교 신앙의 교리적인 면이 얼마나 많이 앞에 나타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물론 그것은 믿음의 실천적이며 윤리적인 면들로부터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사실 모든 서신들 안에 이 실천적이며 윤리적인 면들은 분명히 늘 이어져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항상 교리적인면 위에 기초되어져 있다. 예를

들면, 바울은 그의 매서신에 삼분의 이를 믿음의 교리적인 기초를 위하여 할애하는데, 그 나머지 삼분의 일은 그가 날마다의 삶과 품행을 위한 시행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원형적 교회의 성장을 이룩했던 기독교회의 이와 같은 시작과 개혁교회의 전통에서 굵은 맥락을 이루어 온 교리적인 가르침을 시행하는 일은 진리의 지식체계 위에서 신앙을 배우며 성숙해 가는 성도로 채워지고, 그러한 신앙의 성숙은 실천의 타당성 위에서 바른 윤리적 삶을 지속케 한다. 이것은 곧 개혁주의가 말하는 유기적 개념으로서의 교회성장을 가져오게 한다.

3) 회원을 받아들이는 교회의 기강

교회가 회원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잘 관리하는 일은 치리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 좀더 폭을 좁혀서 회원을 받아들이는 면만을 언급하여야 한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교회의 회원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신중하다. 이것은 개혁주의 교회가 유아세례자의 입교 과정만 보아도 분명하다. 유아세례를 받은 청소년들이 (역사적으로 개혁교회가 강했던 나라들은 장년으로서 세례받는 자보다는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경우가 더 많은 현상임) 그들 자신이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하는 과정에서 요리문답 공부의 과정을 마친 후 당회의 장로들로부터 시험을 통과하고 입교하게 된다 (필자는 포체프스트룸에서 연구하는 중 두 아이의 입교준비와 과정을 지켜 보았음).

양적인 증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너무나 값싼 방법으로 교회의 회원을 받아들이는 일은, 숫적증가 이상의 유기적 개념에서의 성장은 미흡할 여지가 있다. 즉 참교인 혹은 교인의 수준 위에 기초를 둔 증가로 평가받기엔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매첸(Gresham Machen 1925, 156)은 오래 전에 이미 교회가 회원을 쉽게 받아들이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내가 보기에는 현재의 종교적 삶에 가장 큰 폐단들 중에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말의 한 형식을 단지 반복하는 사람, 그러한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시행의 한 결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 특성을 위한 애매한 찬미 이상이 아니거나, 혹은 인도주의적 사역에 종사함의 애매한 목적의 기초 위에서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오늘에 와서 더욱 지적받을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러한 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확고한 신앙고백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교회의 여러 역할들을 맡게 된다는 사실이다. 루니아(p.104)의 지적에 의하면, “사람들의 이름이, 심지어 그들이 복음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그들 스스로 분명히 보여줌이 없을 때, 교회의 역할 위에 고용된다.” 한국교회에서도 이러한 면이 없지 않은 듯하다. 제직을 세우는 면에서, 한 사람이 참 신실한 신앙생활을 보여준 때

문이 아니라, 세위 놓으면 교인의 의무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된다.

교회성장이 어느 한 시대의 운동이나 강조점일 수는 없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타야하는 상송 곡선이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교회가 회원을 쉽게 받아들이고, 교회의 봉사에 아직 들어와서는 안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봉사자로 군림케 하는 일은 현순간의 성장곡선을 보일 수는 있으나 교회에 소란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4) 설교사역에 대한 최상의 강조

교회성장의 개념으로 숫적인 증가에만 강조를 두게 되면 항상 손쉽게 많이 모이도록 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게 된다. 나아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설교사역의 위치는 다른 무엇과 교체되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상당히 보편화된 현상이다.

알스톤(p.134)은 때로 현대 교회내에서 설교가 무시되는데, 그것은 보다 특수한 예배의 형태도입, 성례에 대한 우선적 강조, 사회적 활동을 더 좋아함, 설교의 일을 연극공연 안에 바꾸어 나타냄 등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한 현상이기도 하다. 간증이 설교를 대신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고 찬양이 설교의 설 자리를 밀어낸 듯하다.

개혁교회의 전통엔 설교가 모든 다른 것 위에 있는 은혜의 수단

이다. 칼빈이 설교에 대하여 아주 높이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설교가 무엇보다도 뛰어난 은혜의 수단으로 여겼으며,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제네바 시를 변화시킬 것을 믿으면서 삼천 번 이상 설교했다(Leith 1977, 80). 개혁자들의 이런 정신은 종교개혁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 설교에 대한 가장 큰 부흥들 중에 하나였다. 이런 배경 위에서 개혁주의 전통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설교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에 와서 설교의 내용 역시 규명되어야 할 문제로 등장했다. 여기서는 단지 개혁주의 전통에서 강조되어야 할 원리적인 요소만 밝힌다면, 설교는 신구약 성경 안에서 알려진 성경의 메시지를 기초해야 하며 그리고 복음의 선포이어야 한다. 즉 설교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며,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들어내며, 현대인의 삶에 복음의 호소를 강조함에 대한 신학적인 과제이어야 한다(p. 133f).

이러한 개혁주의 전통 안에 있는 설교와 그것의 복음적 내용 위에 있는 강조는 개혁교회가 설교를 교회성장의 수단이고, 그것을 위한 과제로 이해하였음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개혁교회가 교회 성장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복음적인 설교의 회복과 다른 무엇이 그것의 위치를 침해할 수 없도록 강단사역에 독보적 위치를 세우는 데 있다.

5) 교회의 예언자적인 활동의 수행

교회는 부패와 타락의 세상에서 그러한 실상을 일깨워 주고 돌이키도록 소리치는 예언자적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의로움을 표명하게 된다. 이것은 개혁주의 교회의 전통임이 분명하다. 칼빈은 크리스찬의 삶이 가지는 고결성, 크리스찬 개인의 소명, 문화의 변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에 관련시켰다. 따라서 그는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역과 그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인식했던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Leith 1977, 72). 더구나 제네바에서 그의 의도는 단순히 개인들의 구원만이 아니었고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변하는 것을 원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예언자적 사명을 인식함에서 기인했던 것이다.

이러한 개혁주의의 전통은 개혁주의 신앙이 뿌리내려 온 교회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죄악상을 고발하는 소리를 발하며, 그것의 가속화를 저지시키며, 나아가서 그것에 대항하여 버티어 서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여기 이러한 예언자적 의식과 자세는 개혁교회의 전통에 담겨져 온 유기적이며 입체적인 개념으로서의 교회성장과 관련이 있게 마련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의의 기관으로서 그 의의 흐름을 사회로 흐르게 하는 신적 공동체로서의 성장을 지향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에 눈을 뜨다면 외쳐야 할 소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레이스(p.154)에 의하면 오늘의

예언자적 사명을 위하여서는 현행 조약들의 의미, 하나님의 목적과 활동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관계 안에 있는 현실의 관계들과 사회제도들에 관하여 공적인 예고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공적인 예고들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활동을 가리키는 성경적 단서들의 기초 위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개인적 그리고 관계의 문제들에 관하여 크리스찬들의 의식을 창조하고 육성하는 것을 찾는 수단들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들 공적 예고들은 현실 생활의 독특한 상황들에 복음의 선포, 해석, 그리고 적용의 한 형태를 제시한다고 했다. 물론 여기에 명심해야 할 요소는 있다. 교회의 예언적 사명은 교회의 본질적이며 중심적인 사역인 복음사역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중심 사역을 둘러 쌓는 모든 전체 사역에 없어서는 안되는 사역으로 이해해야 하겠다. 또한 교회는 이러한 예언자적 사역을 수행하는 도중에 세상의 어떤 다른 그룹이나 기관들의 역할들을 복제하기 위하여 분리되어 있지 않았음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은 신적 공동체의 의로움의 표명이다. 이 의로움의 표명은 부패의 타류 속에 떠나려가는 사람들의 느낌을 자극한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 죄에 버티어선 마지막 보류로 느끼게 한다 이러한 자극은 분명 교회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거룩한 공동체가 사명의 폭을 넓히며 죄인들에게 자극을 일으켜 나가는 것은 입체적인 개념의 성장을 뒷받침하게 된다.

4. 결론

한국교회가 세계에 유래 없는 급성장을 백여 년의 짧은 역사에 이룩하였다고 자랑한다. 실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다 신실한 주님의 교회로 나타나려면 급성장 속에 있는 허실한 부분들을 살피는 일에도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나이에 비하여 무척 키만 숙성한 그러면서도 너무나 여위어 있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여기에 성장을 위한 성장에만 강조점을 둔 개념의 영향과도 관계가 있다. 이 여윈 부분을 살찌우기 위하여 개혁주의 교회들은 개혁주의 전통 속에 담긴 교회성장 개념과 방법들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유기적이며 입체적인 개념으로서의 성장 그리고 그러한 성장에 필요한 과제들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으면 한다.